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한다

### 전북대,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사업 선정 31일까지 지역대학생 15명 선발... 우간다 1년 파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 유지상, 이하 대사회)와 함께 정부 해외 무상원조 공여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이하 코이카)의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8월말부터 우간다에 재학생을 주축으로 한 15명의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을 1년간 파견하게 된다.

코이카의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봉사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2주 동안 전북대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우간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농축산, 보건 의료,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교육받는다.

이후 코이카 연수원 입소를 통해 개도국 현지 활동에 필요한 안전교육, 응급상황 대처교육, 인성교육, 현지 적응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후 우간다로 파견될 예정이다.

파견 지역은 우간다 수도에 위치한 국립종합대학인 마케레레대학의 농업 부설연구소와 낙농특화시험농장, 우간다 국립지도자연수원, 우간다 국립가축유전자원연구소 등이다.

봉사단원들은 현지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해당 작업장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코이카는 봉사단원에 대한 출국준비금, 항공료, 여권, 예방접종 비용 일체와

월 생활비 550달러와 570달러의 주거비, 그리고 현지어 심화학습비 200달러 등이 지원된다.

또한 현지에서 봉사단이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사업지원비(최대 40,000달러)와 활동 물품지원비(15,000달러/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우간다 현지 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상해 및 재해보험, 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과 의료비 및 의료상담 비용도 제공한다.

특히 봉사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별도로 고용된 현지 코디네이터가 우간다 KOICA 사무소의 지원 하에 1년 365일 학생들을 관리하게 되며, 응급 상황 발생시 인근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치료하는 SOS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한다.

또 귀국 시에도 귀국준비금, 항공료, 화물택송료와 함께 국내정착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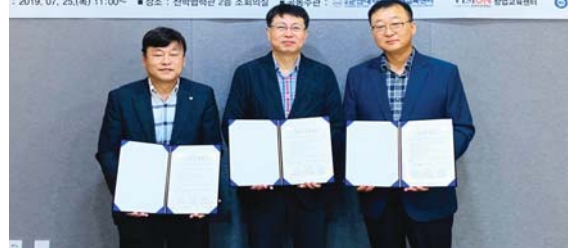
(월 60만원 적립, 귀국 시 일괄지급 약 720만원)을 지급하며, 봉사활동 수료 후에는 해당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KOICA 개발협력 커리어센터'에서 취업과 관련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대는 봉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전북대 및 전북지역 학생이다.

남자는 군필 혹은 면제지만 가능하다. 신청은 전북대 홈페이지(www.jnu.ac.kr)에서 교내공지나 한국대학교 사회봉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ucss.or.kr/) 등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31일까지 이메일(kssy@j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전북대는 지역 대학생들이 이번 파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2개국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코이카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장은성 기자

## 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운영



전주비전대학교가 25일 군산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와 창업교육 및 학생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창업생태계 강화 발벗고 나서

### 전주비전대, 혁신인재 육성·창업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5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군산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와 창업교육 및 학생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생태계 강화 등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관련 정

보 및 실무자 교류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학생 창업가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교류 활성화 △공동 창업아이템 발굴 및 관련 공동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이다.

김승희 전주비전대 창업교육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선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델 구축으로, 창업문화 확산과 우수한 창업가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의료 혜택에 어려움 겪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현을"

### 원광대, 진안서 하계의료봉사 펼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교당 한의과대학(지도교수 류도곤) 동아리 '봉황' 및 간호학과(지도교수 강지숙) 동아리 '백목련'을 중심으로 최근 하계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원광대 한의과대학 동아리 '봉황'과 간호학과 동아리 '백목련'이 최근 하계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및 원불교 대산 감대거 종사 탄생가 일대에서 진행된 올해 의료봉사활동은 동아리 회원과 진료한의사 등 45명이 참가했으며, 침과, 내과 등 한의과 진료를 비롯해 혈압·당뇨 검사, 발마사지, 치매검사 등 의료 활동 및 마음공부 시간을 가졌다.

봉사단은 지역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펼쳤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된 봉사활동을 통해 동아리 회원 간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

하고, 예비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체험하기도 했다.

대학교당 최영관 지도교수는 "접근성 문제로 의료 혜택에 어려움을 겪

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매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성으로 봉사활동에 임한 봉사

##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6일 2019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te.go.kr)에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영양사 4명, 영양실무사 5명, 특수교육지도사 7명 등 총 16명이다.

2019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는 3개 직종에 286명이 지원해 평균 17.9대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소양평가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 특히, 특수교육지도사

의 경우, 평균 28.4대1로 채용 직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8월 중 채용 예정지역 교육지원청에 제출서류 및 준비물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신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9월 1일부터 신규채용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용 계약 체결 및 근무 기관(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채용예정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문준일 HK+연구교수,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중관계 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문준일(사진) HK+연구교수가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은 개인연구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공동연구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트랜스바이칼 지역 원형스토리 연

구: 경계설정과 재경계화'를 주제로 사업에 선정된 문준일 교수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2억 8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형스토리 연구를 시도한다.

문준일 교수는 "민족문화 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원형스토리는 그 민족의 세계관, 인간관, 정체성, 신앙 등 풍부한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자산을 보

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트랜스바이칼 지역은 고대부터 북방유목민족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소수민족 간 문화교류와 혼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독특한 '트랜스바이칼 문화'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역의 다양성과 다층성을 추적하면 한민족 문화와 유사한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이 지역의



문화연구가 한민족의 근원과 정체성을 살펴보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 지역의 원형스토리는 한국 고대 문화와의 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한민족의 실전(失傳)된 이야기의 원형을 복구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 도교육청, 사고력 키우는 학생통계캠프 큰 호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계읽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통계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생통계캠프는 지난 24~26일까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에서 진행됐으며, 2019 전북 학생통계활용발표회 참가를 신청한 초·중·고교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학탐구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통계포스터의 제작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수학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익혀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학습흥미를 형성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